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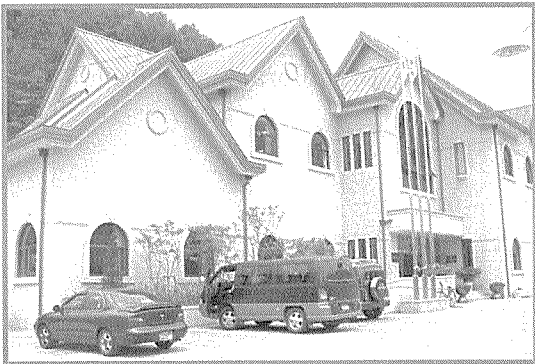
도서관탐방

메밀밭 언저리에 앉아 문학의 향기에 빠져볼 수 있는 곳

평창군립대화도서관을 다녀와서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곳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인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메밀꽃 필 무렵』 중 -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 대관령 조금 못 미쳐 장평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장평 방향으로 직진하다 보면 왼쪽 방향으로 '진부면', 오른쪽 방향으로 '대화면'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보인다. 우회전하여 옥수수밭과 메밀밭 사이를 10여분 정도 가다보면 대화면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면사무소로 향하는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낮은 산자락 아래 아담하게 자리잡은 건물 한 채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평창군립대화도서관(사진)이다.



대부분의 지형이 해발 700m 이상 청정 고원지역인 평창군은 약 4만 6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

며, 평창공공도서관(1974년) 평창군립진부도서관(2000년)에 이어 올해 5월 평창군립대화도서관(사진)이 문을 열었다.

평창군립대화도서관(관장 고재룡(高在龍)), 이하 대화도서관(이하 대화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체육공원 등이 인접하여 있으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5일장이 열리는 장터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이다. 게다가 대화도서관은 지나가는 타지의 나그네라도 호기심에 들어와 불만큼 독특한 외양을 뽐낸다.

왠지 도서관하면 떠오르는 전통적 이미지가 있다. 네모 반듯하고 밋밋한 관공서 분위기. 그러나 대화도서관의 경우 현관문 옆 자그마한 도서관 문패를 보기 전까지는 펜션인지 교회인지 아리송하다. '여기가 환자들 요양하는 병원인가요'라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만의 느낌은 아니었나 보다. 만약 이 건물이 대도시 한복판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평창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대화도서관. 건축 설계자의 세심한 배려에 새삼 감사할 따름이다.

총 22억원이 투입된 대화도서관은 대화면 대화리 1172-1의 3필지 3,9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18㎡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도서관 내에는 열람실, 시청각실, 전산교육장, 공부방 등 유아 및 청소년, 일반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도서관서비스〉

이용시간	- 공부방 : 평 일 09:00-22:00 토 · 일 09:00-18:00
	- 열람실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대출권수	1인 3책 이내 7일간 대출

〈도서관 건물 구성〉

- 1층 : 아동열람실, 일반열람실, 시청각실, 도서정리실, 당직실
- 2층 : 청소년공부방, 일반공부방, 사무실, 전산교육장, 정보이용센터, 통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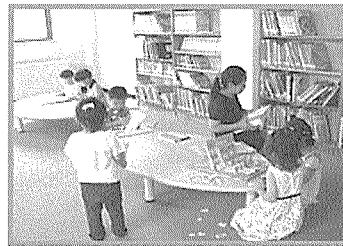
현재 전 직원은 4명(관장 1, 사서직원 2, 행정직원 1)으로 직원들의 포부가 야무지다.

“개관 준비 때부터 군청 직원들 그리고 관내 다른 도서관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힘든 것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도로용 도서관 안내 표지판, 홈페이지, 안내책자도 만들어 도서관이 더욱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장서 개발과 함께 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이곳 저곳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해 부지런히 꾸려가야지요.” 젊은 나이에 타향살이를 각오하고 도서관 꾸미기에 열심인 신참 사서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이 살던 시대와 현재 사이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이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이 나귀를 끌며 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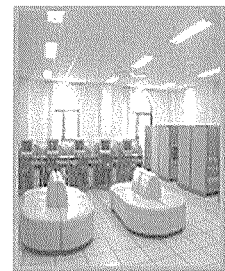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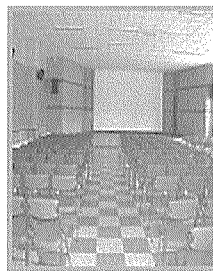
〈컴퓨터 소하체로 유명한 소하 이천섭씨가 쓴 도서관 현판〉



〈1층 아동열람실〉

야 했던, 숨이 막힐 지경인 바로 그 평창의 풍광은 별반 변한 것 같지 않다. 나른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으로의 탈출

을 꿈꾸는 계절이 돌아왔다. 메밀밭 언저리에 앉아 문학의 향기에 빠져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의 도서관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글 : 박경아 기획 · 홍보팀장, 사진 : 심효정]



- ∨ 시청각실
- ↑ 정보이용센터
- ← 전산교육장